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소리 없는 외침, 단식 16일을 맞으며

오늘이 12월 18일(화), 단식 16 일째이다. 지난 3일 국회 본관 계 단 앞, 민주평화당 전막당사에서 시작하여 이곳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 바른정당외과 병실에서 16일째를 맞는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다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인 투표가 절반이 넘게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득표율 보다 거의 두 배의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득표율 보다 훨씬 적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정당도 있다.

이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큰 적폐이다. 또한 여성이나 청년,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 많은 인구(유권자)를 차지하면서도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비율은 너무나 적다.

이러한 폐단을 고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도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내서 그들의 의사와 이익과 권리를 지켜야 정치적 약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과 정당 간에 벌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민의가 제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기초다.

불신의 1순위이고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이고 정치이지만, 우리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정치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개혁하려면 정치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를 개혁하려면 우리 정치의 기초를 형성하는 국회의원 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공직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적폐와 경제 적폐·사회 적폐를 청산하는 첫 단추는 마땅히 정치 적폐를 뜯어고치는 적폐 선거법의 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들도 그들

의 대표자를 연방의회와 지방의회에 보내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의원들도 적은 보좌진을 데리고 검소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막당사에서 시작한 나의 단식 투쟁은 3일간은 오후 9시가 되면 멀리 떨어진 노원구 자택으로 출퇴근하면서 했고, 4일째부터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시작되어서 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올라 가서 밤을 새웠다.

알지 못했던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샤워도 했다.

함께 밥 새워 단식 농성했던 손 대표를 사우나 안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었다. 단식 7일, 8일째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후 9시 이후에 전막당사에서, 로텐더홀에서도 쫓겨나서 국회 앞 어느 사우나에서 자야만 했다.

12월10일(월), 단식 8일째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홍성문

대변인, 박춘림 성북갑 위원장 등이 참석 가운데 국회 정문(기자회건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바로 119구급차에 실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703호 입원실에서 12월 15일(토)까지 6일간 머물렀다.

12월 15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 원내대표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합의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갈 길이 구만리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바로 죽는다. 물을 안 마셔도 얼마 못 산다. 그러나 밥이나 음식물은 상당기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8일째 생수만 먹고 물을 안 먹고 한강성심병원에 갔더니, 응급실 담당교수(의사), 병실 담당 교수(주치의)의 공동된 지적은 "탈수가 심하다. 피가 산성화 되었다. 콩팥이 안 좋아졌다. 이대로 단식을 계속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였다.

나는 바로 죽지 않으려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수액과 영양제 주사를 맞고 있다. 생수가 나의 유일한 음식물이다. 생명은 고귀하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는 나의 내내력의 한계까지 단식을 계속하면서 견디어 보고자 한다. 정동영 당대표 등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社說

택시기사 월급제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택시 기사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월 25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택시 기사 월급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정철호 의원은 "국토부와 택시 TF,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택시 기사 월급 수준과 관련, "특정할 수는 없지만 250만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포함한 택시업계 지원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구상하는 택시 기사 전면 월급제는 '사납금 부담도 크게 카풀까지 도입될 경

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택시 기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전면 월급제가 도입될 경우 택시 기사들은 매달 250만원 이상 월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카풀 서비스가 도입해도 수입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월급제가 정착하려면 버스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회사에 지원금을 주든지, 택시 요금을 많이 올려야만 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보완 없이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면 택시 회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택시 영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라도 택시 기사들의 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택시 기사들의 안전월급제가 카풀도입 논란으로 그 시기가 보다 앞당겨져 택시 기사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賴	의미할	되	賴及萬方
及	미칠	급	
萬	일만	만	
方	모	방	

▷ 뜻: 만방(萬方)이 극(極)히 넓으나 어진 덕(德)이 고루 미치지 못.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평소 교육훈련 속달로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해야

손자병법에 초윤장산(礎潤長傘)이란 예가 있다. 초가집 주춧돌에 이슬이 맺히면 비가 올 것이니 우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이다. 손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가였다.

재난발생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기 전 젖은 주춧돌의 징후처럼 사전에 여러 징조나 징후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말썽을 일으키는 기기들은 전문가를 불러서 바로 고치고 작업자의 컨디션은 문제 없는지, 관리적 측면에서도 작업 위험성은 없는지, 작업전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는지, 난간 작업시 안전장치는 잘 되었는지, 용접 작업시는 소화기나 소방호스를 전개해 놓고 있는지 등 체계적인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재난대응 안전교육 및 훈련을

해야한다.

왜 교육훈련을 해야 할까? IQ를 살펴보면 앵무새 30, 고양이 50, 개 55, 코끼리 60, 돼지 70, 침팬지 95 정도라고 한다. 폐닉에 빠지면 앵무새 IQ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재난현장에서 폐닉(갑작스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평소 반복적인 숙달이 필요하다. 훈련시에는 임무를 나누어 실시해

야하고 자신을 임무를 확실히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폐닉 사례로는 아이를 안고 나 왔는데 버개를 안고 나온 경우, 소화기를 안전핀을 뽑고 분사해서 불을 꺼야하는데 불속으로 던져버리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는 소방관도 어머머한 화염이 분출하고 폭발이 일어날 경우 폐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호랑이 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듯이 재난현장에서는 평소에 훈련 받은 대로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인수 /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장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